

더 가까이, 충주

충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생활민화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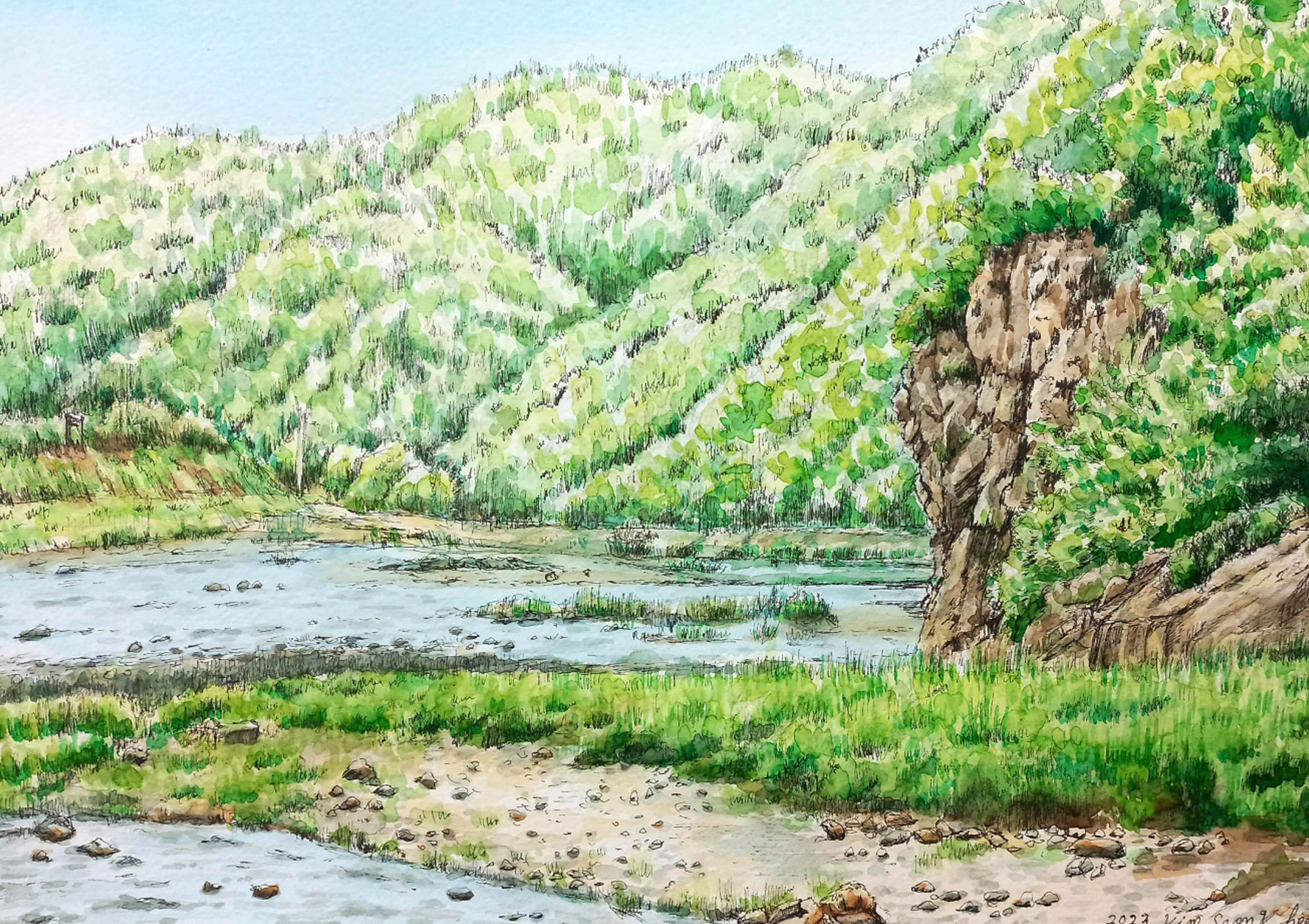
글·그림 충만

충주시

충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생활민화책

글·그림 충만

충주시



2023 Kim Green & Co.

충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설화만화책

소년 임경업과 이무기

글·그림 충만

초판 1쇄 2022년 12월 31일

글·그림 충만(충주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도움을 주신분들 충주시 평생학습과 이은옥 평생학습과장

김복연 학습정책팀장 박성재 평생교육사

펴낸곳 충주시 평생학습과(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45)

편집 디자인 및 인쇄 초록달팽이(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71, 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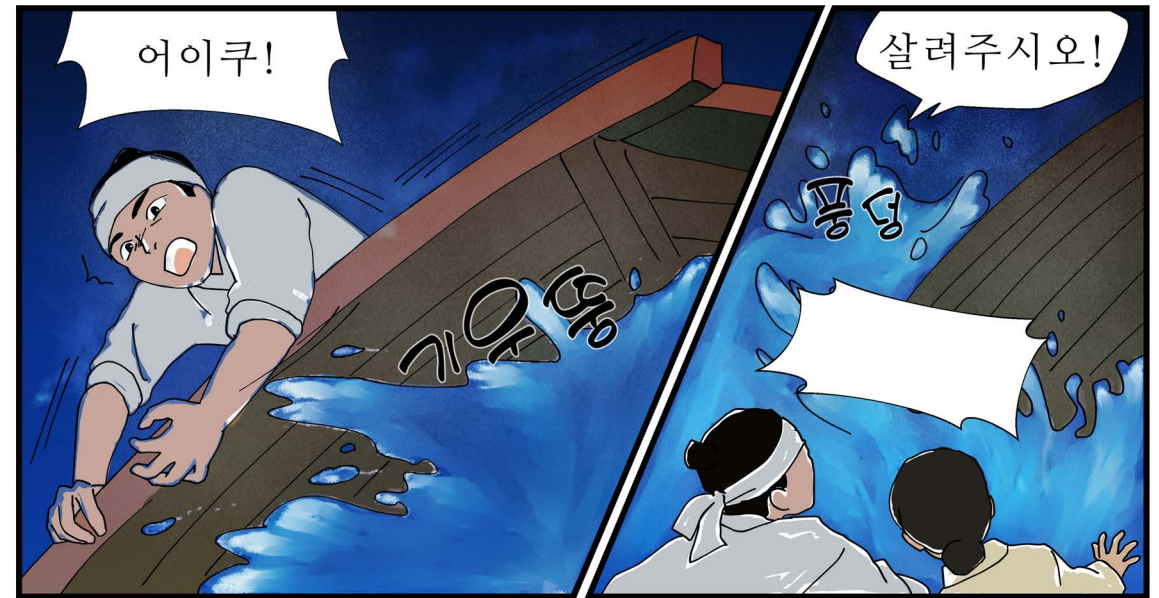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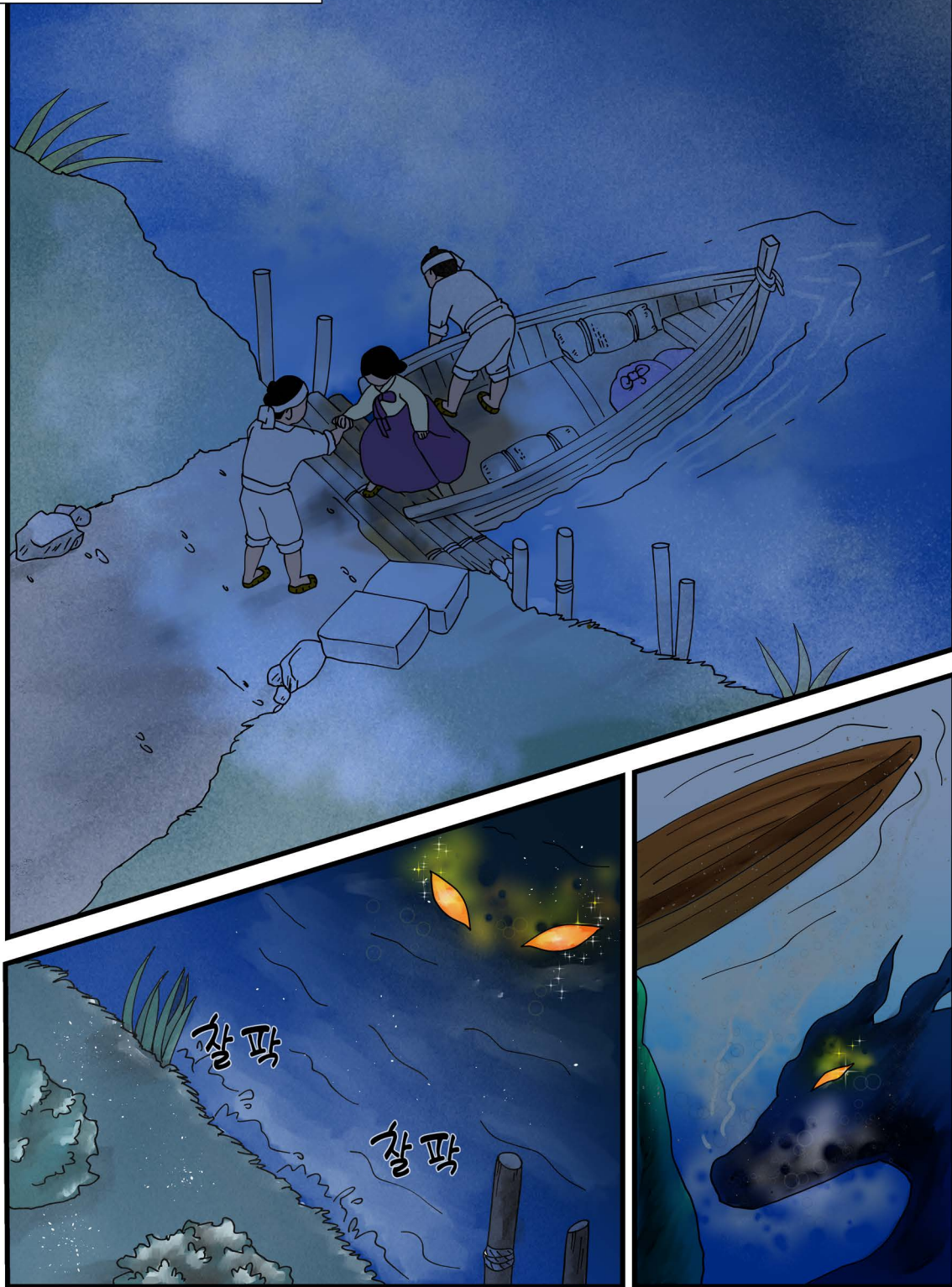
* 이 책은 2022년 융합·창조동아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충주시 평생학습과의 지원과 예성글패의 집필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충주시 평생학습과, 충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 중기
충주 달천강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못된 장난을 일삼고 있었다.

올해만도
몇 번째니
강을 건널
수가 없네.

관군이 나서도
뽕족한 수가
없으니...

우리 개똥이도
물어가 버렸어!

우리 삼촌도 물에 빠져서
이무기한테
먹힐 뻔했대요!

개똥이가
누구야?

우리 개

이무기를
없애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강을 건너게
하겠어!

정심사

수련이 하고
싶다고요?

예. 스님.

너무 어려서
수련하기엔 이르군요.

그럼
허드렛일이라도
시켜주세요.

허허...





경업군.



예. 스님.



경업은 무엇을 위하여 수련을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마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이무기를 퇴치하려고 합니다.

이무기요...



이무기를 퇴치하려면 힘만으론 안 되겠지요.

저를 따라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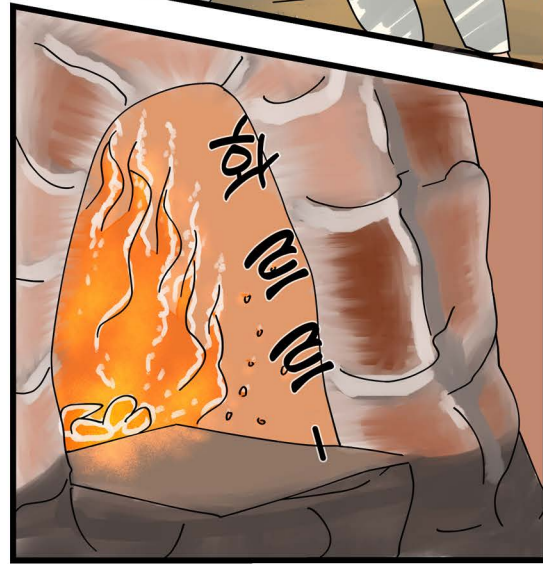


깡

깡



어서오십시오. 스님.



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건 강한 불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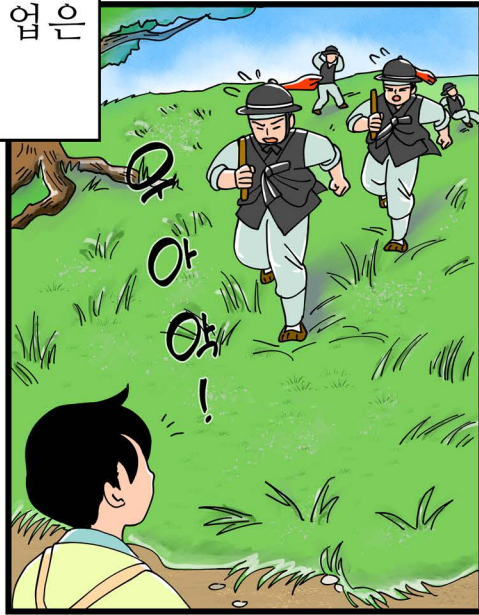
깡



저도 칼을 만들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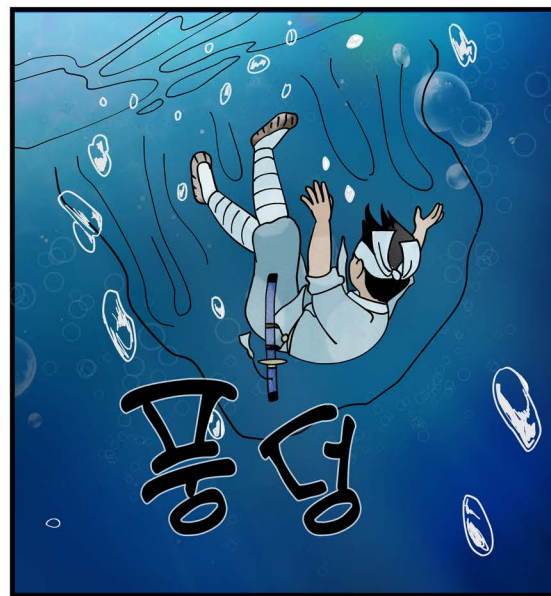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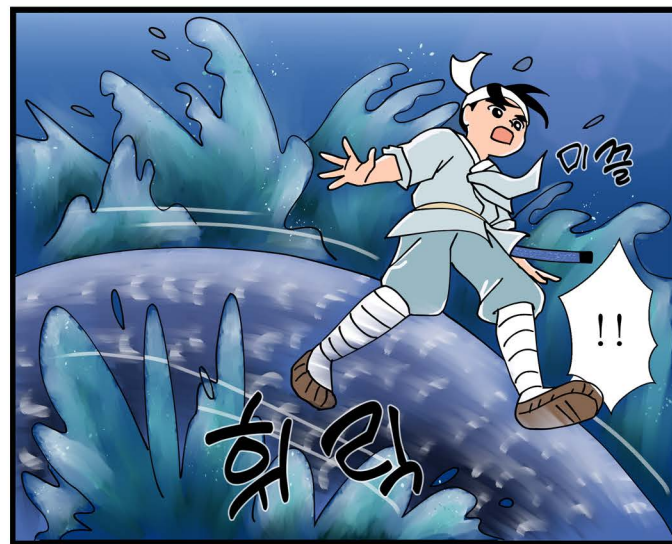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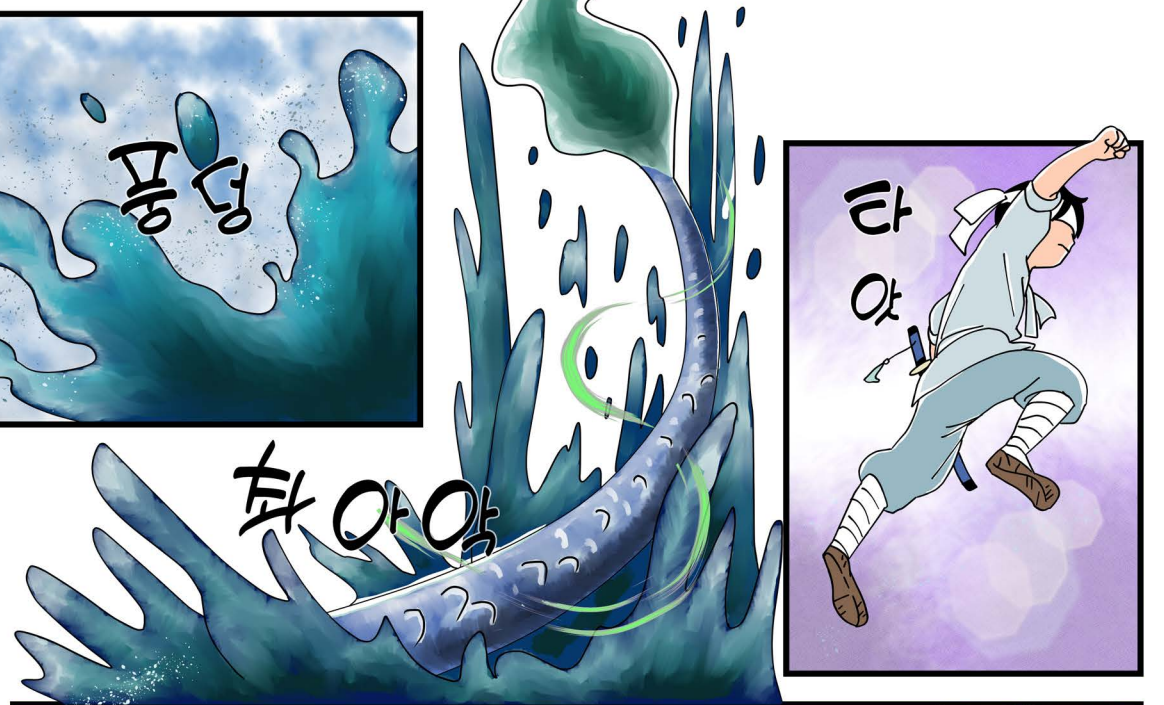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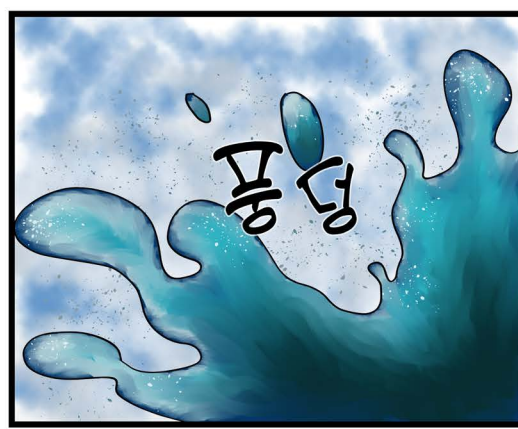
수천 번을 두드리려 칼을 완성한 경업은 드디어 하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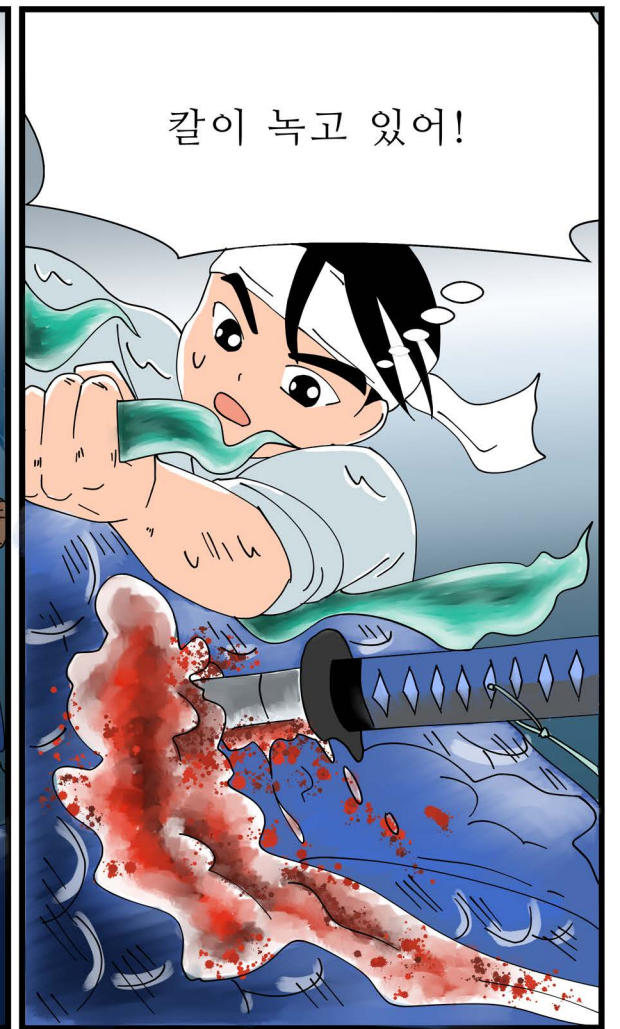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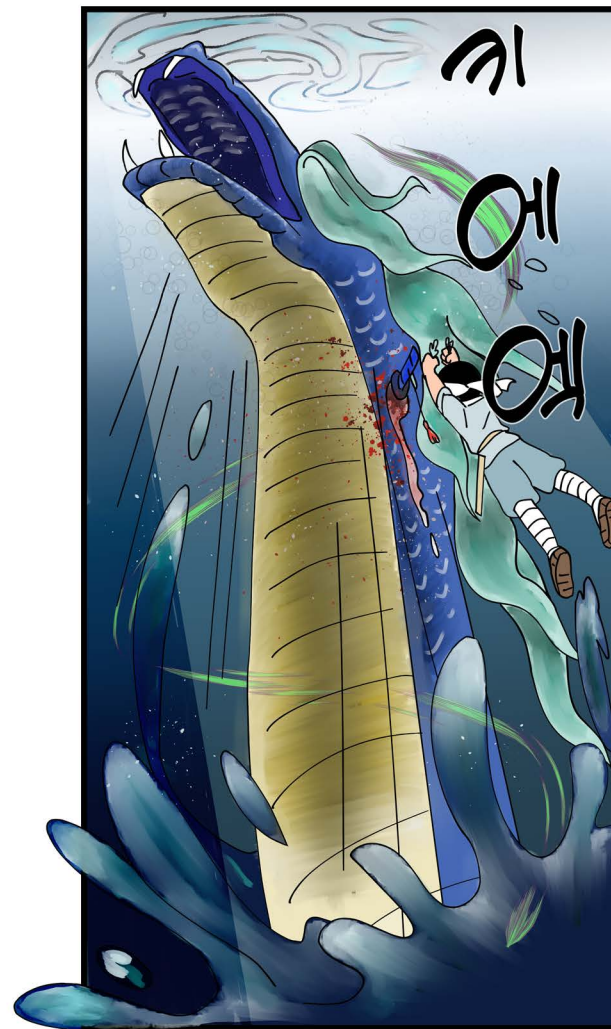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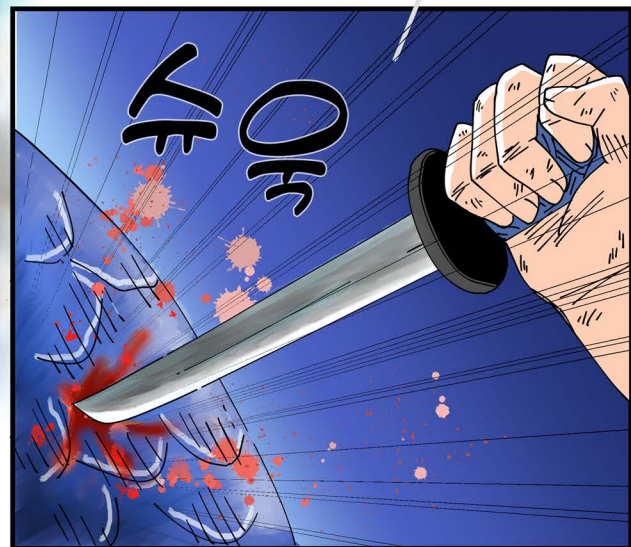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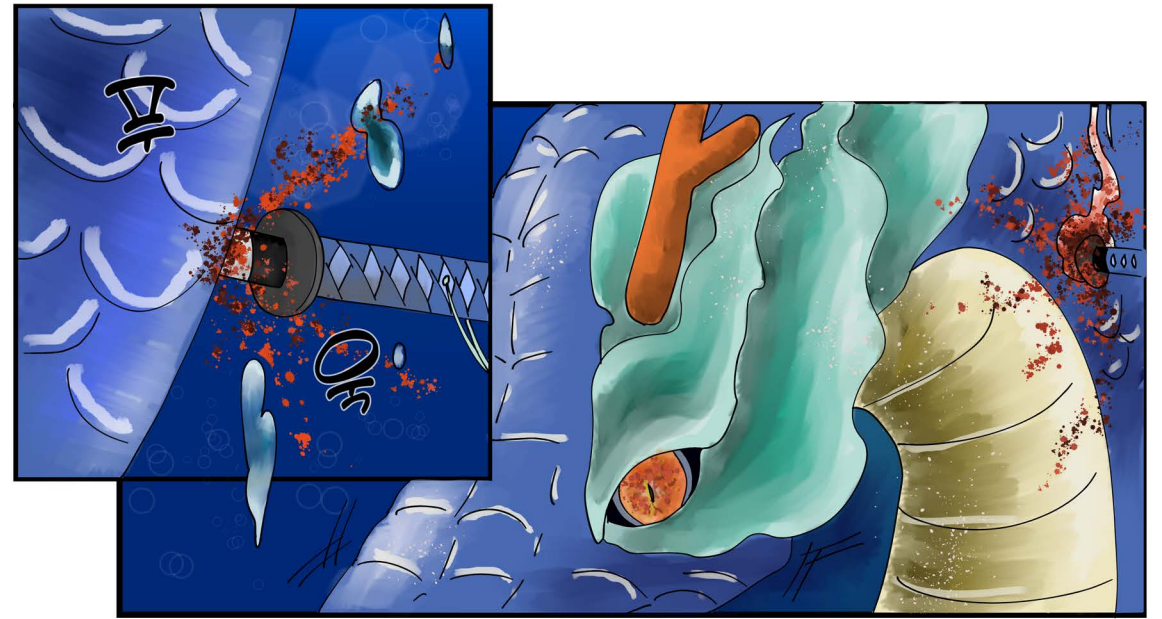
수련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요.





이무기야!
모습을 드러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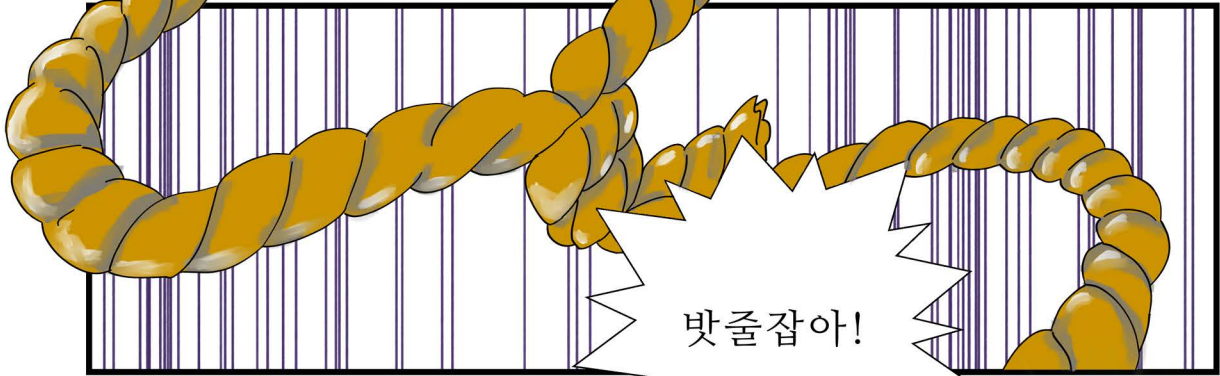






경업아!
우리도 도울게!

치
아
아



밭줄잡아!



바
앗



야

당



당겨!

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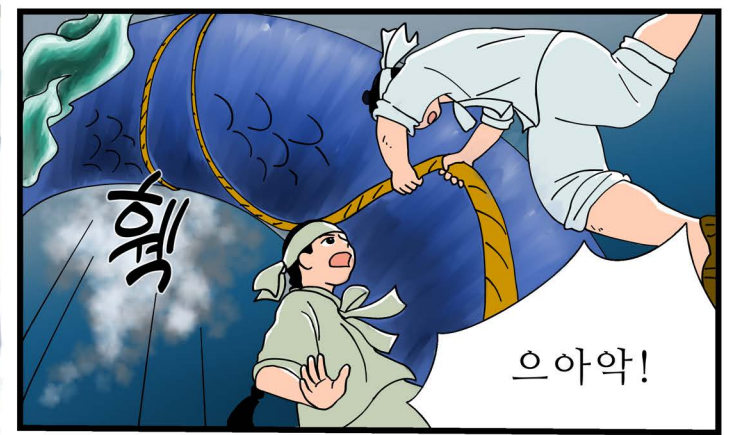


영차!

나도
돕겠소!



크르르르...



윙

으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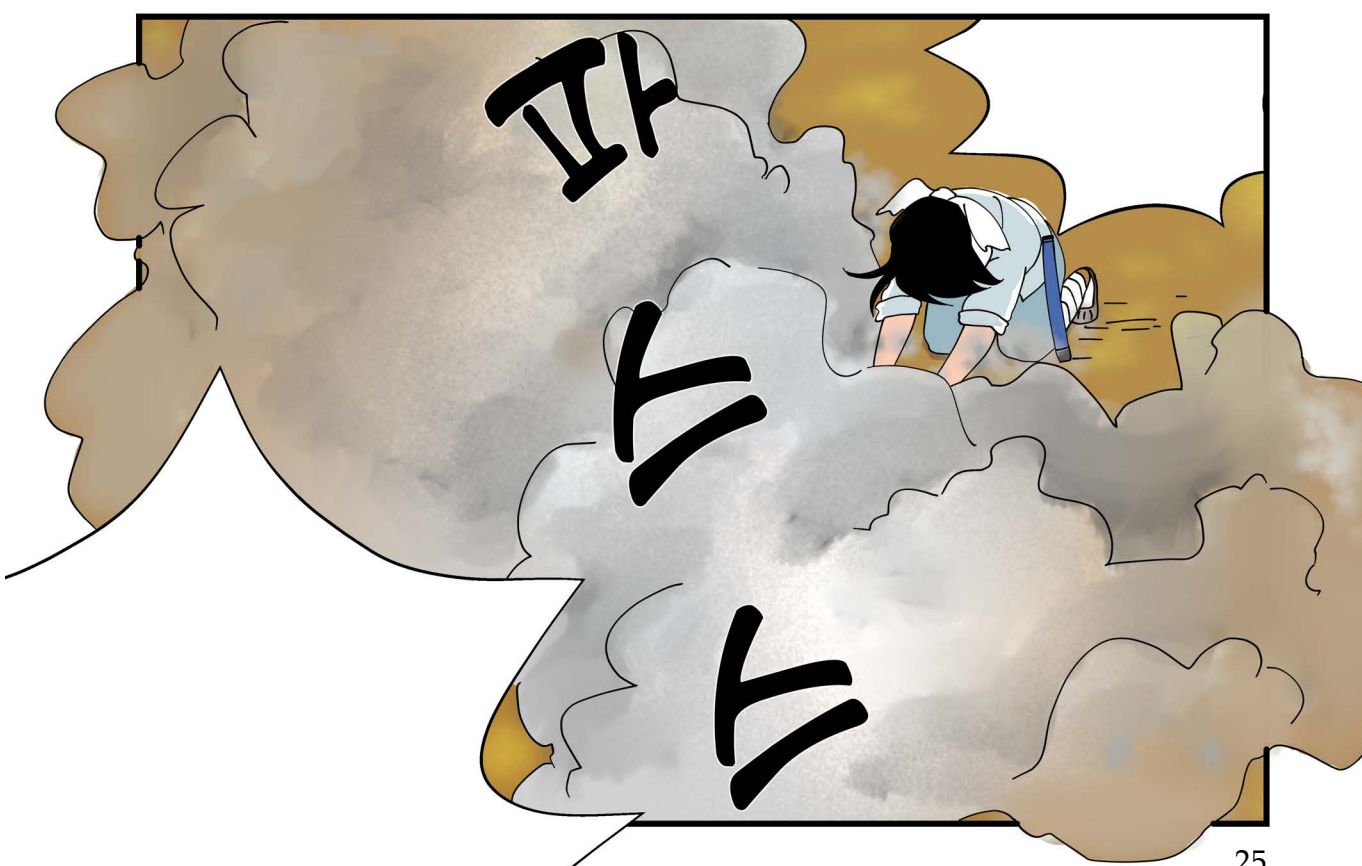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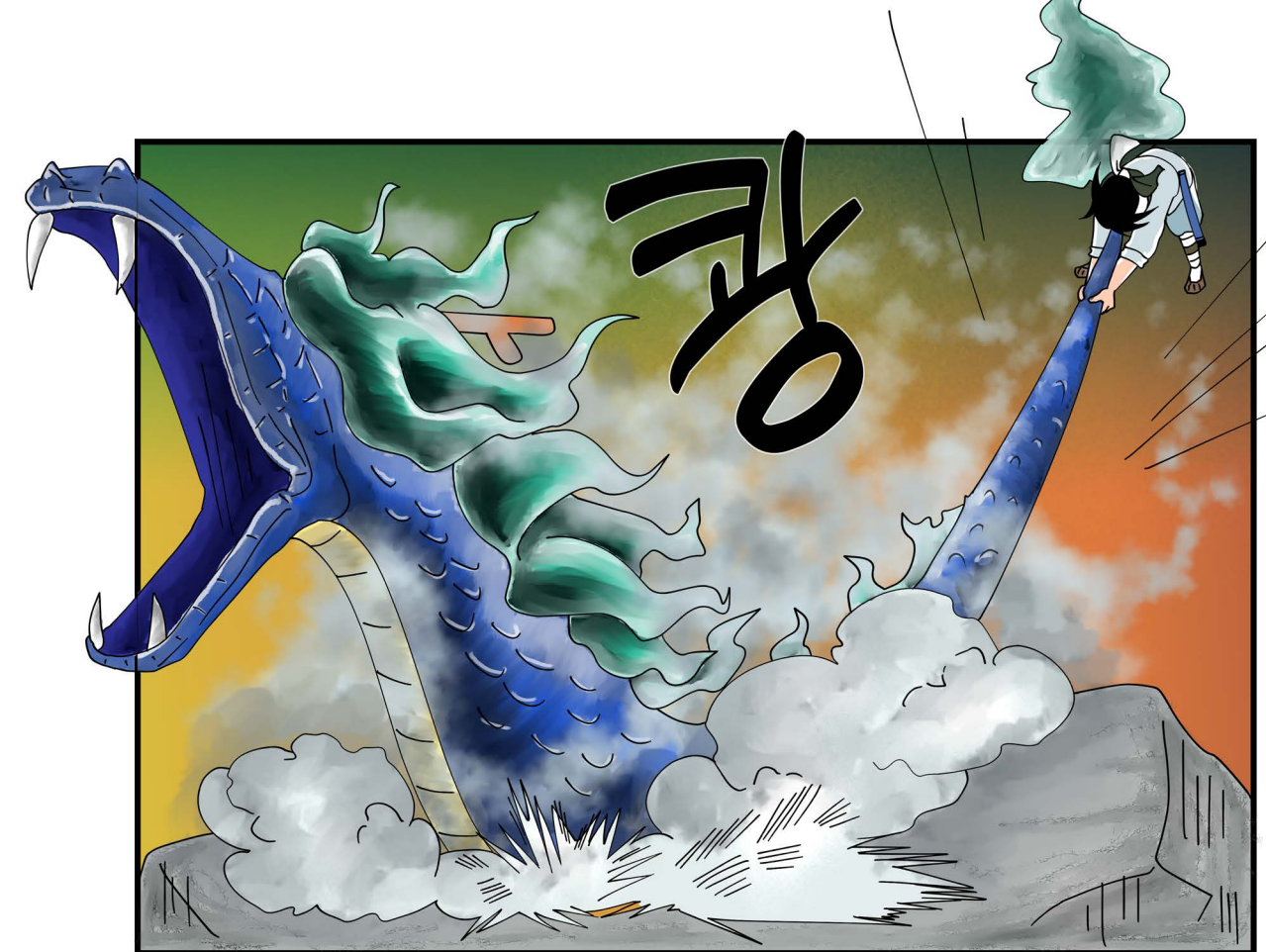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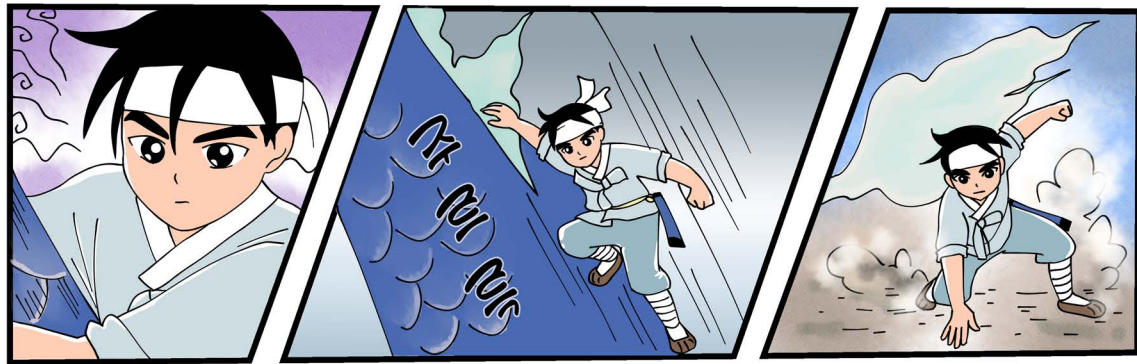


으악!

휘
잉

퐁
당

다시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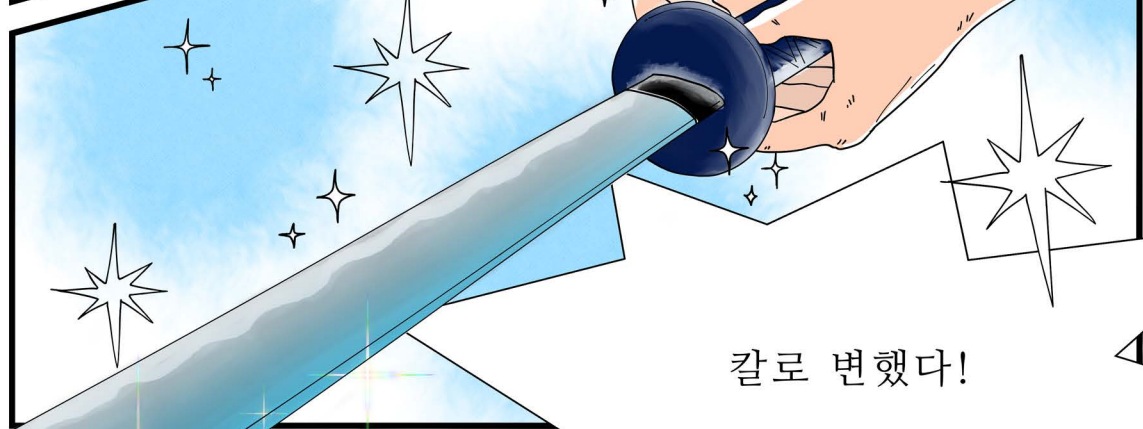




이무기가 없어!



아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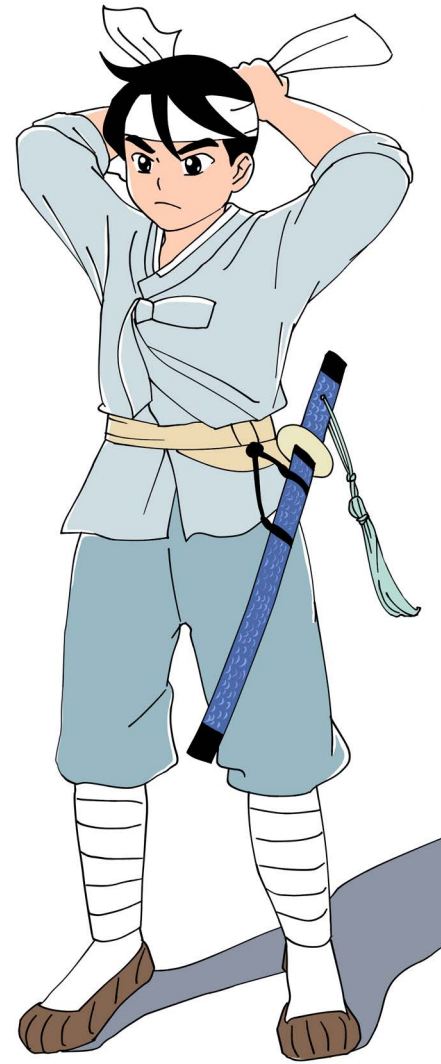
칼로 변했다!



경업이 만세!

만세!

부록



검을 찾아서

글·그림 임예지



이무기와와의 격투 끝에 임경업 앞에



이무기가 사라지고 나타난 검 한 자루



임경업은 그 검으로 천하를 누볐다고 합니다.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이무기가 변한 검이 어떤 검일지 상상해 보세요.

임경업 장군이 활약한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검이 있었습니다.

환도는 긴 외날을 가진 도검으로 운검, 예도, 쌍수도, 쌍검 등 다양한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정한 시간 조건에 제작한 참사검은 신령스러운 검으로 사인검, 사진검, 삼인검, 삼진검이 있는데 사악한 기운을 끊고 재앙을 막는 의례용 검입니다.

날이 양쪽에 있는 양날 검인 창포검은 비밀스럽게 소지하기 위하여 제작한 칼입니다. 칼집과 칼자루를 대나무로 만든 것은 죽장도라고 하며 짧은 것은 횃대를 닮아 횃대검이라고 합니다.



쌍수도는 명나라에서 전해진 쌍수장검과 왜검에 조선 고유의 환도 양식이 융화되어 탄생한 양손칼입니다.

남녀가 패용하던 손칼인 장도는 옷고름이나 허리춤에 매어 생활 도구 및 장신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외에 기병이 사용한 '언월도', 보병이 사용한 '협도', 사형용 칼인 '참도', 왜에서 들어온 '왜검' 등 많은 검이 있습니다.

참고한 책 : <조선의 무기와 갑옷> 민승기

WHY?

믿거나 말거나

글, 그림 김진희



이슴아, 이심아 * , 준비 되었느냐?...

1995년 어느 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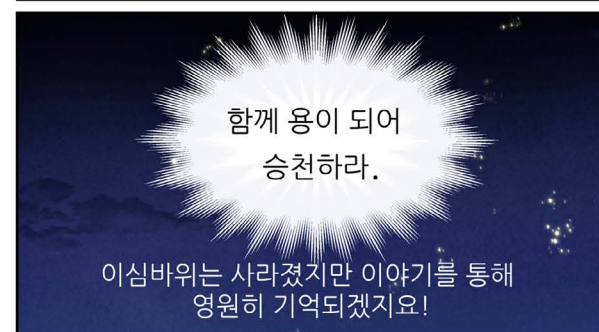
* 1606년 칼로 변할 당시 이무기에게는 쌍둥이 아들, 딸이 있었다.



그동안 수행에 정진하느라 고생 많았다.



네 어미도 칼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 돌아와 바위 속에서 도를 닦았으니



함께 용이 되어 승천하라.

이심바위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를 통해 영원히 기억될것지요!

소년 임경업이 이무기를 내리친 바위가 정말 있을까요?

답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이심(이슴) 바위!

달천강 노루목에서 유주막 가는 길에 있던 이심 바위는 실제 이무기의 흔적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어 설화와 더불어 충주의 명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1993-97년 도로 확장 공사와 교량 건립 시기에 없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알아요? 다른 이유로 사라졌을지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 이무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임경업 장군의 해신이야기. 바다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얼굴바위이야기

글.그림 장종순

때는 조선 인조

여러분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구출하러 청으로 갑시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임경업장군

식량이 없는데 어떡하죠?

가장 가까운곳 연평도에 배를 대시오

우선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꺾어오시오

쌀물이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 해야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많았습니다

연평도에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환혼이 얼굴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임경업장군의 임장군각이 있습니다. ※환혼:죽은사람의 넋이 살아 돌아옴

쌀물이 들어와서 고기가 많이 잡혔 습니다. 임경업장군은 사람들을 도와 식량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비운의 장수 임경업

글.그림 심정민

임총병 만세!

분하다 임경업만 없었다면 반군이 성공했을 텐데!

비겁한 것들! 나와 싸우자!

임경업만 피하면 우릴 막을자가 없다!

백마산성

남한산성

청나라가 곧 공격하니 빨리 도망가시오~

나를 따라라~

분하다! 조선 최고의 장수가 되려고 했건만...

우리가 살려면 임경업을 죽일수 밖에 없어...

임경업이 천북방어사로 있던 1633년 명나라를 도와 반군을 물리치고 그 공로로 황제로부터 총병 벼슬을 받았다. 임경업은 이때부터 임총병이란 이름으로 명나라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임경업이 지키고 있는 백마산성을 피해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을 굴복시켰다. 조선을 속국으로 삼은 청나라는 조선의 왕에게 요청하여 임경업을 수군장으로 임명하고 명나라를 공격 할 것을 명령 하였으나 임경업은 청나라를 속이고 몰래 명나라를 도와줬다.

1642년 청나라를 속였음이 발각된 임경업은 청나라로 끌려가던 도중 탈출하여 승려로 변장하고 숨어 지내다 명나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조선으로 압송됐다.

1646년 조정의 간신들로부터 역적으로 모함을 받고 태형을 당하던 도중 모진 매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1697년 숙종때 그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제법 장대하고 실하게 보이더니, 어찌 이렇게도 빨리 죽었다던 말인가. 그리고 그는 담력이 커 국가가 믿고 의지할 만했다. 그런데 도리어 흉악한 무리의 꾀에 빠져 헛되이 죽고 말았으니 애석 할뿐이다.” -<인조실록>

[네이버 지식백과] 임경업편에서 발췌

공에 이런 귀?? 글그림 이혜림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임충민공 충렬사(林忠愍公 忠烈祠)

충주는 나라의 중심만큼 다양한 역사와 설화가 이어져 내려 오고 있는데요.



이중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임경업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임충민공 충렬사가 있습니다.

충렬사는 사적 제189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임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에요.

충북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충렬사'는 충주 시청을 기준으로 약 11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요.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유물 전시관에는 장군의 유상과 교지, 유품, 추련도 현판 등 유품이 전시돼 있어요.

또 사당 안에서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임경업 장군의 초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문헌내서형

삼초대

박새봄

충주 단월에서 태어난 임경업은



무예를 연마하기 위해 석축을 쌓고



삼초대 가는 법

충주 시내에서 수안보, 문경 방향으로 갑니다.

충주시가지를 벗어나 건국대학교를 지나면 달천강과 삼거리가 나옵니다.

유즈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삼초대는 유즈막 삼거리에서 구도로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구도로는 가로수 길입니다.

가로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심사가 나오고 절벽으로 나 있는 층층 계단길이 삼초대가 시작되는 절벽입니다.



소연평도/얼굴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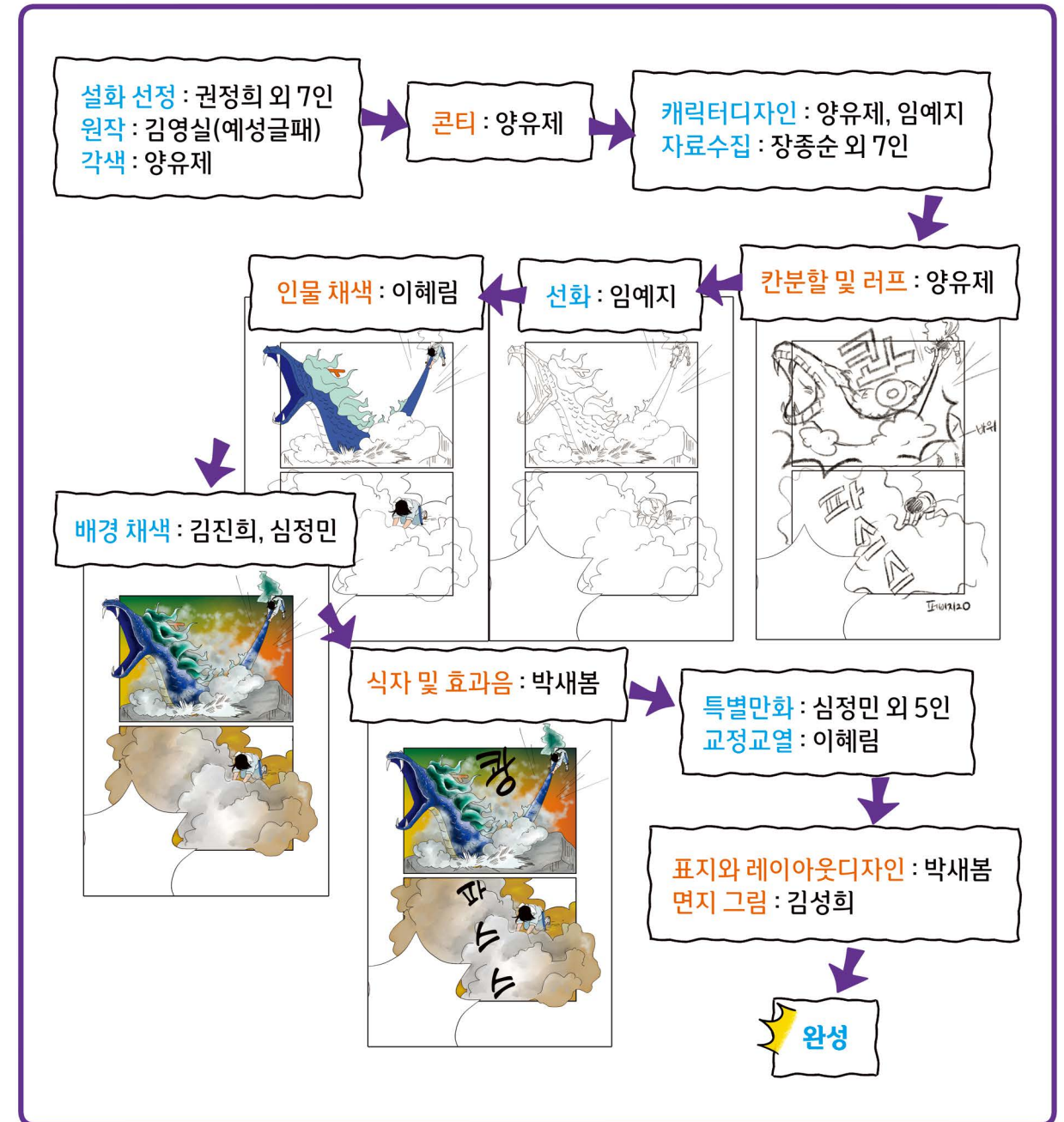
이 설화는 <청구야담> 등 다른 문헌 설화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구비로 전승되는 임경업의 이야기는 서해 연평도의 임경업 장군 사당과 관련된 것이다. 임경업은 호국의 요청으로 한나라의 수군대장이 되어 명나라를 치기 위하여 서해를 건넜고, 다시 청나라로 잡혀 가다가 도망하여 서해를 건너 명나라로 망명 하였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 봉림대군을 구출하기 위해 임경업 장군이 중국 산둥으로 가던 중 연평도에 잠시 정박해 병사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썰물 때 물이 빠지는 바다 길목에 가시나무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연평도의 저장망 어로 방법이 됐다고 전해온다. 연평도 주민들이 조기잡이의 시초를 임경업 장군으로 생각하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충민사에서 풍어제를 지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연평도는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약 5.2km 떨어져 있는데, 그 섬의 남쪽해안에는 멋있는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은 얼굴바위가 있다. 임경업 장군의 환혼이 얼굴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연평도의 얼굴바위는 웅진군의 비경 중 하나로 선정돼 있고, 또한 얼굴바위 절벽에는 천연기념물 제 323호로 지정된 매가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 임경업과 이무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했다는 걸 아시나요?
충만(충주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동아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탄생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충만블로그

